

6.5% 성장 배후의 함금량

신화매일전신, 길림성 1분기 경제운영 좋은 출발 조망

길림성의 1분기를 보면 전면적 진흥'세'가 봄바람과 함께 밀려온다.

거시적으로 보면 지역총생산액은 지난 동기보다 6.5% 성장하여 또 한번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았다. 발전 저력을 보면 1, 2, 3 산업 증가치가 각각 3.0%, 9.5%, 5.7% 증가하여 농업이 안정되고 공업 발전이 빠르며 봉사업이 최적화되는 구도가 나타났다. 미시적으로 보면 경제 활력이 느껴지고 첨단장비 제조산업과 정보기술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신질생산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자원 요소가 지속적으로 집결되고 있다...

길림대지를 살펴보면 발전의 열조가 일렁이고 '진입' 추세가 더욱 강력하며 '안정' 기반이 더욱 튼튼하고 새로운 동력에너지가 쭉쭉 솟아난다. 길림성은 한창 발전의 기세를 타고 있으며 그 기세를 몰아 용왕매진하고 있다.

성장 속도 재차 전국 평균 수준 추월, 경제열차 전면적으로 속도 높여

장춘시: 제1자동차그룹 아우디신에너지자동차유한회사의 지능작업장에서 신차종이 가속 조립되어 출하되고 프로젝트 주변, 배터리, 전기 드라이브, 완성차... 신에너지자동차 연구개발과 제조산업 프로젝트들이 집중되고 산업집결이 빠르게 집결되고 있다...

길림시: '중국석유' 길림석유화학분회사 정유화학공업 혁신 및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현장은 한창 건설을 다그치느라 분방한 경사이다. 건설후 저에너지 소모, 고부가가치의 화학공업 제품을 백만톤 이상 증산하게 되며 상하류 산업사슬의 배치를 가속화하게 된다...

드바쁜 생산 광경은 경제운영이 가속화되는 축소판이다. 비교적 높은 발전 속도의 지지하에 길림성 지역총생산액의 성장 속도는 여러 분기 연속 전국 평균 수준을 초과했으며 올해 1분기의 경제 '성적표'에는 하이라이트가 빈번히 나타났다.

—전면적 진흥이 더한층 가속화됐다. 1분기 지역총생산은 2023년 년간 6.3%의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0.2% 빨라졌고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 동기보다 6.3% 증가해 전년도보다 6.0% 빨라졌으며 한도액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지난 동기보다 6.0% 성장, 수출은 지난 동기보다 6.6% 성장했다.

—시장의 자신감이 더한층 집결됐다. 시장의 심심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공고해지고 제고되며 진흥 기회는 투자유치와 더불어 생기고 집결된다. 1분기 길림성의 자금 조달 대상은 462개, 조달 자금은 586억 6,600만 원으로 지난 동기보다 41.9% 증



제1자동차그룹 홍기제조센터 위산공장구 총조립 작업장 생산라인에서 지능로봇이 차량 다이아 바퀴를 조립하고 있다. / 신화사

가, 성장 속도가 그 어느 해보다도 빨랐다. 민간투자 동력이 증강되어 지난 동기보다 2.8% 성장해 전 성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보다 0.8% 제고되었다.

—발전의 질이 더한층 최적화됐다. 전략적 신질산업에 힘을 쏟으며 길림성은 신질생산력 육성에 착안하여 1분기 전 성 첨단기술 제조업의 증가치가 지난 동기보다 11.5% 늘어나고 규모이상 공업 증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3%에 달했다. 미래산업을 깊이 있게 배치하여 첨단기술산업 투자가 지난 동기보다 12.3% 증가한 가운데 첨단기술 제조업 투자와 첨단기술 봉사업 투자가 각각 10.5%, 16.2% 증가되었다.

길림대학 경제학원 원장 정일병은 신질생산력이 길림성 1분기 경제운영을 가속화하고 질을 제고하며 구조를 최적화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유력한 기초를 닦아놓았다고 표시했다.

공업 버팀목이 한층 든든해져 양적, 질적 향상의 추세 강하다

공업제조업은 길림성이 실정에 맞추어 신질생산력을 육성하는 '주진지'이다. 1분기 공업경제는 발전이 빨랐으며 중점 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격상되었다.

—공업 엔진 기반이 안정적이다. 1분기 규모이상 공업의 증가치는 지난 동기보다 10.4% 성장, 성장 속도가 전년 동기보다 2.8% 빠르고 전년도 수준보다 3.6% 빨라졌다. 자동차산업의 증가치가 지난 동기보다 10.1% 성장, (길림성 규격으로) 완성차의 생산 판매량은 각각 22.1%, 27.3% 증가되었다. 국가전기망 장춘전력공급회사의 수치를 보면 장춘시 공업전기 사용량은 지난 동기보다 13.53% 성장하여 공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기초

를 닦아놓았다.

2024 북경국제자동차전시회에서 중국제 1자동차그룹 '홍기' 브랜드 부스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긴 행속, 저온에 견디고 안정성이 높은 신에너지 자동차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선진적인 차종의 배후에는 공업기업에 대한 길림성의 고압화, 지능화, 녹색화 매진 추진과 '지능화 개조 및 디지털화 전환 발전'의 전면적 추진력이 안받침되었다.

동북의 전통 로후공업기지에서 석유화학, 야금, 식품 등 산업은 낮은 데서 정화를 흡수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기초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조업 전환의 열조가 길림대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정보기술을 주도로 하루의 완성차, 고속철 제조업체에서 중류의 부품 부대기업, 다시 상류의 공업 원료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2024년 전 성 제조업 기업의 디지털 전환 복사률을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질산업의 동력에너지를 본다. 3월 길림성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4%로 최근 반년 만에 처음으로 확장 구간에 진입했다. 중국정책과연구회 상무부사 서용재는 공업 기초가 전통과 신질 산업을 '어깨 나란히' 움직이도록 구동하는 것은 확장으로 복귀하는 배후의 '암호'라고 주장했다.

동력발전설비의 생산량은 76.3%, 동차조의 생산량은 57.1%, 도시궤도 교통차량의 생산량은 16.2% 증가하여 1분기 여러가지 공업제품의 생산량이 지난 동기보다 쾌속적인 성장을 실현하였다. 이와 함께 높은 '새로움 함유' 제품이 뒤집세라 쏟아져 나온다. 홍기 신에너지 하위 브랜드 첫 전차 차종이 출시되고 중차장준계도빠스주식유한회사가 자주적으로 연구제작한 우리 나라 첫 수소에너지 시역 열차가 시험 운행되고 제1자동차그룹 부디 신에너지 동력 배터리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새로운 성장점은 좋은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자신감을 증강시키며 저력을 증강한다."고 길림성통계국 국장 림매는 말했다.

제3 산업이 변명, 생산생활이 '척척 호응'

오늘날 길림성의 봉사업은 경제운영의 '안정기'가 되고 있으며 전환 업그레이드 발전의 '촉진기'가 되고 있다. 1분기 지역총생산에 대한 제3산업의 기여도는 53.5%에 달하여 전 성 경제성장을 3.5% 견인하고 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경제발전의 주력군을 위해 봉사한다. 전 성의 발전 태세로 볼 때 첨단기술 영역의 생산성 봉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길림성 신질생산력의 육성을 지지하며 상부상조하고 있다.

현재 장광위성기술주식유한회사가 운영하는 '길림 1호' 위성은 전 성 경작지 정보를 밀집 측량하여 많은 신형의 농업경영주체에 데이터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장광위성을 선두로 길림성은 부품제조, 원격감지 데이터 응용 등 업종의 근 250개 기업이 공동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다.

1월—2월 길림성 규모이상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과학연구와 기술 등 4대 생산성 봉사업종의 영업수입은 대폭 증가되어 전 성 규모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의 영업수입 성장 속도를 21.3% 끌어올려 기여율이 80.1%에 달했다.

—활력이 솟구쳐 문화관광열이 '뜨겁고' 소비가 '왕성'하다. 1분기 방설관광열과 휴일경제 효과의 이중 작용하에 길림성 국내 관광객 접대 규모는 지난 동기보다 95.4% 성장하고 국내 관광수입은 동기 대비 107.1% 성장, 입국 관광객 접대 규모는 지난 동기보다 897.9% 증가, 입국 관광수입은 동기 대비 842.2% 증가되었다.

문화관광 열풍은 끊임없는 인파를 실어와 소비자시장과 경제운영의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1분기 길림성 한도액이상 숙박업과 요식업 영업액은 각각 지난 동기보다 6.6%, 9.9% 증가, 주민당 소비지출은 지난 동기보다 실제로 10.5% 증가되었으며 철도 려객 발송량은 39.2%, 도로 려객 수송량은 52.1%, 민항 려객 발송량은 43.0% 증가되었다.

"길림성의 1분기 경제운영은 이미 성장 회복에서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섰으며 공급과 수요 양단의 협동하여 힘을 발휘하고 동시에 좋은 태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 발전 추세가 량호하다."고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교수 방복전은 말한다.

/ 신화사

신형 에너지 저장 '황금 코스' 천억대 투자 직접 추진

신형 에너지 저장이란 양수 에너지 저장을 제외하고 전력을 수출하는 것을 주요 형식으로 하는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가리키며 신에너지를 주체로 하는 신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버팀목 기술이다. 2024년에 '신형 에너지 저장 발전'이 처음으로 정부사업보고에 기입되었다. 당면 각종 신형 에너지 저장 기술은 이미 각지에서 응용되고 있다.

전국 첫 100메가와트시(MWh) 중력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가 강소성 여동(如东) 현에서 한창 건설중이다. 이제 한달 더 지나면 해당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운영에 투입되는데 우리 나라의 중력 에너지 저장에서도 '0'의 돌파를 실현하게 된다. 중력 에너지 저장은 일종의 기계 에너지 저장 방식으로서 그 주요 원리는 신에너지에서 산생된 여유 전기에너지를 리용하여 중력블록(重力块)을 올려 '충전'하고 전기 사용이 고봉에 이르렀을 때 다시 중력블록을 내려놓아 중력으로 '방전'함으로써 전력망에 전력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여동현은 전국 해상 풍력발전 제1현으로 불리운다. 1분기 여동의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을 위주로 신에너지발전 프로젝트는 전력망에 청정전력 46.11억키로와트시를 수송했다.

광동 불산보양에너지저장소는 우리 나라에서 1차적으로 건설한 가장 큰 전력망 측독립 리튬이온전지 에너지저장발전소이다. 에너지저장소 중점 업종의 영업수입 성장 속도를 21.3% 끌어올려 기여율이 80.1%에 달했다.

연변 금융봉사로 기업 융자난 해결

—연변조선족자치주공업정보화국 '금융의 기업 진입' 활동 추진

일전, 연변조선족자치주공업정보화국에 따르면 중소형 기업에 더욱 정밀한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의 융자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공업정보화국은 인민은행 연변분행, 국가전력망 연변배전회사, 국가전력망 영대생명연변중심지회사와 연합하여 '금융의 기업 진입'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금융의 기업 진입' 봉사활동은 연변내 30개 중소기업으로부터 저당물이 없는 문제, 부채율이 높은 문제, 납세액이 낮은 등 문제로 인해 융자를 할 수 없는 점을 전면적으로 부동하고 정리했다. 기업의 현황과 부동한 융자 수요를 고려하고 공업중합봉사 플랫폼에 의탁하여 전 E 금융봉사, 교통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광대은행 등 15개 금융기구로 이루어진 금융봉사

지 저장 설비 총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매년 월광오대만구에 4.3억도의 청정 전기에너지를 수송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30만톤 줄일 수 있다.

2023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이미 건설된 신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의 루계 설비 규모는 3,139만키로와트에 달하는데 이는 1.4개 삼협수력발전설비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며 2,000만가구 주민들의 전기 사용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2023년 한해 동안 우리 나라 신형 에너지 저장 설비 신규 설치 규모는 이미 '13.5'말 설치 규모의 근 10배에 달했으며 지금도 이 수치는 부단히 갱신되고 있다.

올해 광동성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의 보고 기록 수량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강소성은 올해 400만키로와트의 신형 에너지 저장기가 국가 전력망에 편입되어 전력 공급 보강 및 전력망 조절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14.5'이래 우리 나라는 새롭게 신형의 에너지 저장 설비를 증가해 직접적으로 1,000억대의 경제투자를 추진하였다.

신형 전력 시스템의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여 우리 나라는 계속하여 더 많은 에너지 저장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상주시의 염혈압축(盐穴压缩) 공기에너지저장발전소는 압축공기에너지 저장 영역의 국가 시험시범 프로젝트이다. 염혈에너지 저장의 미래의 산업화, 상업화 전망은 아직 전환 효율의 향상과 건설 원가의 하락에 의존해야 하는바 과학자들은 계속 탐색중에 있다.

/ 중앙 TV 방송넷

조를 내와 전력 E 대출(电E贷), 보편택대출, 전문화·정밀화·특색화·혁신화 기업 신용대출(专精特新信用贷) 등 특색금융제품을 한데 모았다. 금융봉사는 기업의 일일이 방문하고 좌담회를 조직하는 등 선전활동을 전개하여 '한개 기업 한개 정책' 등 실제적인 정책성 융자방안을 고안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의 신심을 북돋우고 있다.

현재 각 금융기구는 7,828만원의 융자를 성공적으로 점목시켜 16개 기업과 대출의향을 달성하고 10개 기업과 계약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 주공업정보화국은 계속하여 기업과의 접촉을 추진하고 기업의 융자 부족에 초점을 맞추어 봉사 모식을 혁신하며 길림성 연변 금융기구, 투자융자기구와 연합하여 금융정책 해석, 금융제품 소개, 대출 담보 등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직접융자 경로를 넓히고 공업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 연변일보

'중국이동', 세계 최대 규모 '단일스마트컴퓨팅센터' 정식 가동

'중국이동'이 최근 세계 최대 규모 단일스마트컴퓨팅센터(最大单体智算中心)—'중국이동'스마트컴퓨팅센터(혹호트)의 가동을 공식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인공지능(AI)가 속기 카드 약 2만장이 설치되었는데 AI 칩 국산화율이 85%를 넘었고 스마트 컴퓨팅 파워 규모는 6.7억사플롭스(EFLOPS·1초에 670억/억차의 부동 소수점 연산을 수행)에 달한다.

소개에 따르면 이 스마트컴퓨팅센터는 중국 AI의 광범위한 적용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의 큰 격차를 메우고 교통, 의료, 교육 에너지, 금융 등 산업의 대모형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AI 혁신의 발전을 위해 견고한 기반과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다. '중국이동' 스마트컴퓨팅센터는

/ 인민넷

24188 표준 컨테이너 초대형 적재선 시항



우리 나라에서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한 차세대 초성능 초대형 24188 표준 컨테이너 적재선이 5월 7일 출해하여 시항했다. 이는 당면 시장의 최대 컨테이너 적재선으로 국가 첨단기술 선박 명록 제품 및 강소성 중대 과학기술 성과 전환 대상이다. / 신화사

지난 4개월 우리 나라 화물무역 수출입 5.7% 증가

9일 해관총서에 따르면 전 4개월간 우리 나라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13.81만억 원으로 지난 동기보다 5.7% 성장했다. 이 중 수출은 7.81만억 원으로 4.9% 증가, 수입은 6만억 원으로 6.8% 증가했다.

4개월간 민영기업의 수출입은 7.51만억 원으로 10.7% 증가되었다. 국유기업의 수출입은 2.21만억 원으로 2% 성장하여 대외무역 총액의 16%를 차지하였다. 4개월간 우리 나라 전기기계제품의 수출액은 4.62만억 원으로 6.9% 성장, 수출총액의 59.2%를 차지하였다. 자동차는 2548.5억 원으로 24.9% 증가했다. / 인민넷